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사용실태 및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박 소 영¹⁾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문 혁 준²⁾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만 3세에서 만 5세의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일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으로 나누어 사용실태를 살펴보고, 유아변인(기질) 및 어머니변인(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13개 유아교육기관의 유아 68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에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 교차분석, 상관관계, 상관 계수 차이검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군에 따라 이용기관유형과 가정수입,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작 시기, 주중·주말 평균 사용시간,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결정하는 사람, 유아와 스마트미디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 가정 내 규칙의 유무, 유아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게 하는 이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변인, 어머니변인과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반사용자군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위험사용자군에서는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에서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주요어 :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기질,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 본 논문은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mhyukj@catholic.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에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현대 디지털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변혁은 패러다임의 전환, 시간과 공간 제약의 극복, 인간 간 소통방식의 변화 등을 일으켰다. 디지털미디어 기기는 PC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으로부터 시작해서 휴대전화, 인터넷과 휴대폰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진화된 상태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양방향 소통형의 스마트미디어(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기존 매체에 비하여 상호작용의 특성이 강화된 이유로 급속도로 보급, 확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만 6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94.6%)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간편성, 이동성, 즉시성의 기기적 특성으로 인해 과다사용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김동일 등, 2012).

스마트미디어의 사용은 이미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상생활이 되었고, 손만 갖다 대면 기기가 기능하는 터치스크린 덕분에 두세 살 영아도 쉽게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동아일보, 2010. 10. 28).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실태(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를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에 만 0-5세의 최초 스마트폰 이용 시기는 평균 2.27세로 만 3세가 되기 전인 영아기에 이미 노출되고 있

으며, 10명 중 4명이 주 3-4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의하면, 연령별 인터넷 중독 위험군 중 만 5-9세의 유아 및 아동은 6.4%로 만 20-54세 성인의 5.9%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는 유아의 이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과다사용의 경향도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 영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미디어의 과다사용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서민영, 임은미, 2010; Brenner, 1997; Griffiths & Hunt, 1998).

한편 그동안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재연, 2013)이나 청소년(구현영, 2010; 금창민, 2013)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유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로서 컴퓨터나 인터넷, 비디오 게임 등의 다양한 디지털미디어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Prensky, 2001)인데, 영유아기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스마트미디어 사용자로서의 유아를 주 연구대상으로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김주아, 2013; 이미연, 2014). 기존에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스마트미디어 연구들은 주로 교육용 매체로서 스마트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김은정, 박성덕, 김경철, 2011; Hashemi & Ghasemi, 2011)이거나, 부모 인식에 대한 조사(권연정, 2014; 이원석, 성영화, 2012)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야 스마트미디어 매체의 노

출실태에 대한 연구(이미정, 2013; 이정림 등, 2013)가 진행되고 있다. 유아의 인터넷과 스마트미디어 노출실태를 감안하면, 충분히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일한 속성을 가진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아들이 과다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질과 같은 유아의 개인 내적 요소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각자의 독특한 행동양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마트미디어를 과다사용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유기체의 생물학적인 성향을 지칭하는 기질은 아동 발달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기초적 특성으로(정인희, 황혜정, 2009)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에 대한 보고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기존의 기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순한 기질의 유아는 저항성이 낮고 사교성이 높아 타인과의 관계가 유연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충동적이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고,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나타낸다(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이정숙, 문보경, 2010; Putnam & Stifter, 2005).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사회성이 높고 또래와의 관계가 원활한 유아에 비하여 충동적인 유아는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보다 쉽게 위험상황에 노출되거나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해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빠지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된다(박소영, 문혁준, 2013; 황태경, 2013; Bittman, Rutherford, Brouwn, & Unsworth, 2011). 정지혜(2011)의 연구에서도 기질차원의 자극추구, 위험회피, 민감성이 높을수록, 인내력이 낮을수록 스마트폰을 더욱 과다 사용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기질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서 유아의 기질과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 관련 변인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함께 생활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와 밀접하면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최초의 양육환경이기 때문이며, 이미정(2013)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 관련 변인 중 살펴보아야 할 요인으로 우선 양육스트레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하고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이 늘어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매우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미정, 하지민, 2013). 스마트미디어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의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서소정, 박주영과 김진희(2014)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 및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가 높아지며, 류미향(201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영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자녀의 성격 및 행동 그리고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최형성, 2005). 양육행동은 인터넷 게임 중독과 게임 몰입성 및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었다(김지현, 2010; 이해숙, 2010). 부모의 양육행동이 통제적이고, 과보호적, 허용적일 경우 자녀로 하여금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주아, 2013; 안세라, 2003; 이홍석, 2013; 장영애, 박정희, 2007; Lee & Chae, 2007; Rosen, 2008). 즉,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자녀로 하여금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가능성을 높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행동 또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변인 중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퇴근하는 부모를 기다리기 보다는 부모의 스마트미디어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문미향, 2012). 이원석과 성영화(2012)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들은 부모를 통해서 스마트미디어를 처음 접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부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습관, 행동 등에 따라 유아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인터넷 중독인 경우 자연히 만 0-3세 영유아도 생후 초기부터 인터넷에 노출되며 결과적으로 영유아 또한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성

이 높아진다(한겨레, 2014. 1. 2). 인터넷과 TV의 경우 부모의 미디어 매체의 수용도와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높아졌고, 이것이 곧 미디어매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원, 김승옥, 홍기목, 2011). Nakken(1996)도 부모들 중 한 사람이 중독된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그 자녀도 중독자가 되거나 중독자의 삶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고,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중독자라면 자녀 또한 중독에 빠질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독수준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므로 충분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요인이다.

최근 들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스마트미디어 역사가 짧은 만큼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유아를 일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혼자 놀이가 가능한 네모난 스마트미디어의 세상 속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일반적 특성, 스마트미디어 사용실태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라 유아변인 및 어머니변인과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13개 유아교육기관의 유아 686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아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어머니 관련 변인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에 관한 질문지는 유아의 성별, 연령, 기관구분, 부모의 학력, 취업여부, 수입과 같은 기본정보와 사용시작시기, 사용횟수, 주중·주말 평균사용시간, 사용시간대, 처음 접하게 해준 사람, 사용을 결정하는 사람, 함께 사용하는 사람, 사용규칙의 유무와 사용하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유아특성

(N = 686)

구분	빈도	(%)	빈도	(%)
	유치원		어린이집	
	322	(46.9)	364	(53.1)
성별				
남	166	(51.6)	165	(45.3)
여	156	(48.4)	199	(54.7)
연령				
만 3세	125	(38.8)	108	(29.7)
만 4세	133	(41.3)	111	(30.5)
만 5세	64	(19.9)	145	(39.8)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가족특성

(N = 686)

구분	빈도	(%)	빈도	(%)
	아버지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188	(27.4)	193	(28.1)
전문대 졸업(2-3년제)	170	(24.8)	237	(34.6)
대학교 졸업(4년제)	254	(37.0)	213	(31.0)
대학원 이상	74	(10.8)	43	(6.3)
취업여부				
취업	659	(96.1)	351	(51.2)
비취업	24	(3.5)	277	(40.4)
시간제	3	(0.4)	58	(8.4)
가정 수입				
200만원 미만	51		(7.4)	
200만원-300만원 미만	157		(22.9)	
300만원-400만원 미만	165		(24.1)	
400만원-500만원 미만	138		(20.1)	
500만원-600만원 미만	75		(10.9)	
600만원 이상	100		(14.6)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도구는 서소정과 동료들(2014)이 청소년 자가진단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한국정보화진흥원, 2011)를 유아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스마트폰, 태블릿 PC)로 재 정의하여 용어를 수정한 후 부모가 진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아동학 전공교수 2인과 유아교육 및 아동학 박사 소지자 3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1요인 일상생활장애(5문항), 2요인 가상세계 지향성(2문항), 3요인 금단(4문항), 4요인 내성(4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평가되는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과다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채점을 통해 고위험사용자군(총점이 45점 이상이거나, 1요인 16점 이상, 3요인 13점 이상, 4요인 14점 이상으로 모두 해당되는 경우),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총점이 42점 이상 - 44점 이하,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3점 이상으로 위 조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일반사용자군(총점이 41점 이하, 1요인 13점 이하, 3요인 11점 이하, 4요인 12점 이하로 위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으로 분류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기질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lomin(1984)이 개발

한 유아용 EAS 도구를 수정·보완한 박혜원(2012)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부모가 평가하였다. 네 개의 하위 영역 정서성(6문항), 활동성(5문항), 사회성(4문항), 수줍음(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성’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격렬하게 내는 특성을 말하며,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다. ‘활동성’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성격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격렬한 활동을 보이는 특성이다. ‘사회성’은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교적인 특성을 말하며 ‘수줍음’은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평가되는 척도로 평정하였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정서성 .77, 활동성 .74, 사회성 .73, 수줍음 .74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5)의 부모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와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부모가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평가되는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의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박주희(2001)의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최정윤(2008)의 어머니 양육행동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온정·격려(7문항), 한계설정(6문항), 과보호·허용(4문항), 거부·방임(6문항)의 4개 하위요인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격려’란 아동에 대한 수용, 애정 표현, 필요한 도움 제공, 자율성에 대한 칭찬과 격려 등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의미하며, ‘한계설정’은 자녀의 일상생활에 규칙을 정해 단호히 지키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과보호·허용’은 아동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거나 아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부재를 나타내는 양육행동이며, ‘거부·방임’은 아동을 수용하지 못하는 행동, 화를 내거나 체벌을 가하는 행동,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기피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각 문항에 나타난 양육행동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해당 영역의 행동 특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온정·격려 .74, 한계설정 .71, 과보호·허용 .70, 거부·방임 .7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성인 자가진단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본 연구에

서는 스마트미디어(스마트폰, 태블릿 PC)로 재정의하고 유아의 어머니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여, 어머니가 진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아동학 전공교수 2인과 유아교육 및 아동학 박사 소지자 3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평가되는 척도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스마트미디어에 중독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각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라서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미디어 사용실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을 실시하였다.

셋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라 기질,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상관계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유아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일반적 특성, 사용실태의 차이 그리고 상관관계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위험 사용자군 0.3%,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은 7.0%로 전체 중독군은 7.3%로 나타났다.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유아를 일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잠재적 위험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일반적 특성, 스마트미디어 사용실태의 차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유아 중 일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χ^2)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기관 구분($\chi^2 = 20.89, p < .001$), 가정의 수입($\chi^2 = 9.63, p < .01$)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관구분’에서는 일반사용자군에서는 어린이집이 비율이 많았고, 위험사용자군에서는 유치원이 더 많았다. ‘가정수입’에서는 위험사용자군이 일반사용자군에 비해 소득이 더 낮았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스마트미디어 사용실태의 차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일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의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

석(χ^2)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스마트미디어 일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의 사용실태를 비교한 결과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작 시기’는 유의미한 차이($\chi^2 = 14.23, p < .01$)가 나타났다. 일반사용자군의 경우 만 2세에서 만 3세 사이에 시작하는 유아가 345명(54.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사용자군의 경우도 만 2세에서 만 3세 사이에 시작하는 유아가 21명(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아의 ‘주중 평균 사용시간’은 유의미한 차이($\chi^2 = 16.39, p < .001$)가 나타났다. 일반사용자군의 경우 30분 이내로 사용하는 유아가 462명(72.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사용자군의 경우도 30분 이내가 23명(4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주말 평균 사용시간’은 유의미한 차이($\chi^2 = 45.86, p < .001$)가 나타났다. 일반사용자군의 경우 30분 이내로 사용하는 유아가 438명(68.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사용자군의 경우도 30분 이내가 21명(4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결정하는 사람’은 유의미한 차이($\chi^2 = 53.81, p < .001$)가 나타났다. 일반사용자군의 경우 부모가 563명(88.5%)로 가장 높았고, 위험사용자군의 경우도 부모가 27명(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와 ‘스마트미디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유의미한 차이($\chi^2 = 11.16, p < .05$)가 나타났다. 일반사용자군의 경우 부모가 268명(42.1%)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자매 215명(33.8%), 유아 혼자 122명(19.2%), 또래 친구들 17명(2.7%), 친척 14명(2.2%) 순으로 나타났고, 위험사용자군의 경우 부모가 19명(38.0%)로 가

표 3.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일반/위험사용자군의 일반적 특성 (N = 686)

일반적 특성		일반사용자군 (N=636)		위험사용자군 (N=50)		χ^2
		사례수	(%)	사례수	(%)	
성별	남	303	(47.6)	28	(56.0)	1.30
	여	333	(52.4)	22	(44.0)	
연령	만 3세	193	(30.3)	16	(32.0)	.08
	만 4세	227	(35.7)	17	(34.0)	
	만 5세	216	(34.0)	17	(34.0)	
기관 구분	유치원	283	(44.5)	39	(78.0)	20.89***
	어린이집	353	(55.5)	11	(22.0)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175	(27.5)	13	(26.0)	.11
	전문대 졸업 (2-3년제)	158	(24.9)	12	(24.0)	
	대학교 졸업이상 (4년제)	303	(47.6)	25	(50.0)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180	(28.3)	13	(26.0)	3.39
	전문대 졸업 (2-3년제)	214	(33.6)	23	(46.0)	
	대학교 졸업이상 (4년제)	242	(38.1)	14	(28.0)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322	(50.6)	29	(58.0)	2.73
	비취업	262	(41.2)	15	(30.0)	
	시간제	52	(8.2)	6	(12.0)	
가정 수입	300만원 미만	184	(28.9)	24	(48.0)	9.63**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83	(44.5)	20	(40.0)	
	500만원 이상	169	(26.6)	6	(12.0)	

** $p < .01$. *** $p < .001$.

장 많았으며, 유아 혼자 17명(34.0%), 형제·자매 9명(18.0%), 또래 친구들 3명(6.0%), 친척 2명(4.0%)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시간, 프로그램) 유무’는 유의미한 차이($\chi^2 = 15.66, p < .001$)가 나타났다. 일반사용자군은 규칙이 있는 경우가 430명(67.6%), 규칙이 없는 경우가 206

명(32.4%)으로 나타났다. 위험사용자군은 규칙이 있는 경우가 20명(40.0%), 규칙이 없는 경우가 30명(60.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게 하는 이유’는 유의미한 차이($\chi^2 = 27.20, p < .001$)가 나타났다. 일반사용자군의 경우 자녀의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가 334명(52.5%)으로 가장 높았

표 4.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일반/위험사용자군의 사용실태 (N = 686)

사용실태	일반사용자군 (N=636)		위험사용자군 (N=50)		χ^2
	사례수	(%)	사례수	(%)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작 시기					
만 0세(생후 12개월 이하) - 만 1세(13-24개월 이하)	106	(16.7)	19	(38.0)	14.23**
만 2세(25-36개월 이하) - 만 3세	345	(54.2)	21	(42.0)	
만 4세-만 5세	185	(29.1)	10	(20.0)	
스마트미디어사용 횟수(최근 1개월)					
한 달에 1-2회	73	(11.5)	6	(12.0)	7.87
일주일에 1-2회	301	(47.3)	14	(28.0)	
일주일에 3-4회	144	(22.6)	17	(34.0)	
일주일에 5-6회	48	(7.6)	6	(12.0)	
매일	70	(11.0)	7	(14.0)	
주중 평균 사용시간					
30분 이내	462	(72.7)	23	(46.0)	16.39***
31-60분 이내	137	(21.5)	20	(40.0)	
61분 이상	37	(5.8)	7	(14.0)	
주중 사용시간대					
오전	71	(11.2)	6	(12.0)	1.87
오후	187	(29.4)	19	(38.0)	
저녁	378	(59.4)	25	(50.0)	
주말 평균 사용시간					
30분 이내	438	(68.9)	21	(42.0)	45.86***
31-60분 이내	165	(25.9)	14	(28.0)	
61분 이상	33	(5.2)	15	(30.0)	
주말 사용시간대					
오전	94	(14.8)	5	(10.0)	1.27
오후	315	(49.5)	24	(48.0)	
저녁	227	(35.7)	21	(42.0)	

표 4.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일반/위험사용자군의 사용실태 (N = 686) (계속)

사용실태	일반사용자군 (N=636)		위험사용자군 (N=50)		χ^2
	사례수	(%)	사례수	(%)	
유아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처음 접하게 한 사람					
부모	416	(65.4)	27	(54.0)	4.27
형제·자매	82	(12.9)	6	(12.0)	
친척	43	(6.8)	6	(12.0)	
또래 친구들	19	(3.0)	2	(4.0)	
유아 스스로	76	(11.9)	9	(18.0)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결정하는 사람					
부모	563	(88.5)	27	(54.0)	53.81***
형제·자매	11	(1.7)	6	(12.0)	
친척	4	(0.6)	2	(4.0)	
또래 친구들	1	(0.2)	1	(2.0)	
유아 스스로	57	(9.0)	14	(28.0)	
유아와 스마트미디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					
부모	268	(42.1)	19	(38.0)	11.16*
형제·자매	215	(33.8)	9	(18.0)	
친척	14	(2.2)	2	(4.0)	
또래 친구들	17	(2.7)	3	(6.0)	
유아 혼자	122	(19.2)	17	(34.0)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시간, 프로그램) 유무					
있다	430	(67.6)	20	(40.0)	15.66***
없다	206	(32.4)	30	(60.0)	
유아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게 하는 이유					
자녀의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334	(52.5)	21	(42.0)	27.20***
자녀의 통제를 위해서	113	(17.8)	6	(12.0)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8	(4.4)	7	(14.0)	
자녀의 학습 및 정보습득 위해서	78	(12.3)	2	(4.0)	
자녀가 습관적으로	42	(6.6)	11	(22.0)	
기타	41	(6.4)	3	(6.0)	

* $p < .05$. ** $p < .01$. *** $p < .001$.

으며, 자녀의 통제를 위해서 113명(17.8%), 자녀의 학습 및 정보습득을 위해서 78명(12.3%), 자녀가 습관적으로 42명(6.6%), 기타 41명(6.4%),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8명(4.4%)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사용자군의 경우 자녀의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가 21명(42.0%)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습관적으로 11명(22.0%),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7명(14.0%), 자녀의 통제를 위해서 6명(12.0%), 기타 3명(6.0%), 자녀의 학습 및 정보습득을 위해서 2명(4.0%) 순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라 유아변인 및 어머니변인과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의 관계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행동 및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 및 상관계수의 차이검증을 산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일반사용자군과 유아변인 및 어머니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r = .34, p < .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r = .53, p < .001$),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과보호·허용($r = .46, p < .001$), 거부·방임($r = .21, p < .001$), 그리고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독($r = .55,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사용자군의 유아는 기질 중 정서성이 높고, 어머니가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과보호·허용, 거부·방임의 태도를 많이 보일수록, 또한 어머니가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깊이 빠져 있을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과다해질 수

표 5.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유아변인 및 어머니변인과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의 관계 ($N = 686$)

변인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Z
			일반 사용자군 ($N=636$)	위험 사용자군 ($N=50$)	
유아 변인	기질	정서성	.34***	.41**	-.54
		활동성	-.34***	-.08	
		사회성	-.38***	.02	
		수줍음	.07	-.06	
		양육스트레스	.53***	.50***	1.02
어머니 변인	양육 행동	온정·격려	-.31***	-.03	
		한계설정	-.29***	.52***	-5.79***
		과보호·허용	.46***	.16	
		거부·방임	.21***	.33*	-.86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독	.55***	.39**	1.37

* $p < .05$. ** $p < .01$. *** $p < .001$.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r = -.34, p < .001$), 사회성($r = -.38, p < .001$),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격려($r = -.31, p < .001$), 그리고 한계설정($r = -.29, p < .001$)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유아의 활동성과 사회성이 낮고, 어머니가 온정·격려의 태도와 한계설정이 적을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위험사용자군을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r = .41, p < .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r = .50, p < .001$),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r = .52, p < .001$), 거부·방임($r = .33, p < .05$),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독($r = .39,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이 높고,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과도한 한계설정, 거부·방임의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스마트미디어에 중독될수록 유아 역시 스마트미디어를 과다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준다. 상관관계수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Z = -5.79, p < .001$)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세에서 만 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미디어의 사용자군별로 일반적 특성과 사용실태, 유아변인과 어머니변인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유아변인 및 어머니변인과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간의 관

계를 중심으로 연구 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일반사용자군, 위험사용자군)에 따라서 유아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기관구분, 사용시간, 부모 학력, 어머니 취업여부, 가정수입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기관구분과 가정수입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구분’에서는 일반사용자군에서는 어린이집이 비율이 높았고, 위험사용자군에서는 유치원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의 이용시간이 짧아 일찍 귀가할수록 스마트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민석과 문혁준(2015)의 연구에서는 기관에서 머무는 시간 길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가정수입’에서는 위험사용자군이 일반사용자군에 비해 소득이 더 낮았다. 이는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2013)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위험성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일반사용자군, 위험사용자군)에 따라서 유아 스마트미디어 사용실태인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작 시기, 스마트미디어 사용 횟수, 주중·주말 평균 사용시간, 주중·주말 사용 시간대, 유아스마트미디어를 처음 접하게 한 사람,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결정하는 사람, 유아와 스마트미디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 가정 내 규칙의 유무, 유아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

게 하는 이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작 시기’는 위험사용자군이 일반사용자군에 비하여 영아기 시기부터 더 빠르게 노출되고 있었다. 이는 김주연(2002)의 연구에서 사용 시작시기가 빠를수록 중독적 위험이 높으며 영유아기에 나타난 문제일수록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유아의 ‘주중·주말 평균 사용시간’은 위험사용자군이 일반사용자군에 비하여 더 오랜 시간 사용하였고 이는 고위험사용자군이 일반사용자군 보다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구 결과(양혜경, 2014)와 일치한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결정하는 사람’은 일반사용자군에서 부모가 88.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고, 위험사용자군 또한 부모가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ingel과 Krcmar(2013)는 영유아의 미디어 소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의 하나로 부모의 태도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영유아가 자신의 의지 또는 의사와 상관 없이 부모에 의해서 스마트미디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유아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게 할 때 매우 고심해야 할 것이다. ‘유아와 스마트미디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에서 두 집단 모두 부모(일반사용자군 42.1%, 위험사용자군 38.0%)가 가장 높은 비율로 함께 사용하였다. 두 번째 비율에서는 일반사용자군은 형제·자매와 함께(33.8%), 위험사용자군은 유아 혼자(34.0%) 사용한다는 결과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유

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환경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규제를 받아야 할 유아들이 혼자 사용함으로써 바람직한 사용 습관을 구축해 줄 안전망이 보다 협소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가정 내 규칙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일반사용자군이 위험사용자군에 비하여 규칙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신영미(2012)의 연구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의 시간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사용시간과 빈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높은 스마트기기의 과다사용을 보인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유아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게 하는 이유’에서는 두 집단 모두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자녀의 재미나 흥미를 위해서(일반사용자군 52.5%, 위험사용자군 42.0%)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번째 빈도의 차이이다. 일반사용자군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통제를 위해 스마트미디어를 사용(17.8%)한다면, 위험사용자군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습관적으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22.0%)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김주아(2013)의 연구에서 영아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는 이유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기존의 종이책, 놀잇감보다는 스마트폰에 아이들의 집중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고서린, 2014) 자녀의 통제수단으로 스마트미디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스마트미디어의 역기능을 인식하여, 제한을 하면서도 부모의 양육부담의 해소방안의 수단으로 스마트미디어가 자녀에게 사용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위험사용자군에 있어서는 유

아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습관적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반복적 사용이라는 중독의 특성(Corsini, 1994)과 매우 유사하다. 즉, 위험사용자군의 경우 부모가 자녀들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해 더욱 유의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일반사용자군, 위험사용자군)에 따른 유아변인(기질) 및 어머니변인(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유아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기질에서는 두 사용자군 모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정서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경향이 높아졌고, 활동성 및 사회성이 높을수록 일반사용자군에서만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경향이 낮아졌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용자군 모두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경향이 높아졌다.

양육행동에서는 두 사용자군 모두 거부·방임의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경향이 높아졌고, 일반사용자군에서만 온정·격려의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경향이 낮아졌고, 과보호·허용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경향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유정민(2012)의 연구에서 인터넷 고위험사용자군이 잠재적 위험사용자군과 일반사용자군에 비해 부모양육태도가 비교적 적대적인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부모양육태도가 적대적이고 부정적

일수록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이 높아지며, 온정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정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양육행동의 한계설정에서는 사용자군 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상관관계수의 차이검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일반사용자군은 한계설정이 높아지면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경향이 낮아지는 반면, 위험사용자군은 한계설정이 높아지면 유아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경향이 더 높아지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가 많고 제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매체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박소라, 2005; 전춘애, 박철옥, 이은경, 2008)가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통제는 자녀의 긍정적 행동을 돕지만, 과도한 통제는 자녀의 문제 행동을 유발(Peterson & Rollins, 1987)할 수 있었고, 김은경(201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는 외현적 문제 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위험사용자군의 경우에는 부모의 과도한 한계설정이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경향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부모는 유아에게 부정적 표현을 자주 보이고, 유아의 요구와 감성을 무시하며 강압적인 양육태도(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를 보이는 것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에게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여 스마트미디어 세계 속에서 자신의 답답함을 풀려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얻는 도피처로 활용하여, 쉽게

몰입하고 탐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박소영, 문혁준, 2012; 장미경, 이은경, 2007).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지시적인 한계설정 태도를 보일수록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유아들은 더욱 빠지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영유아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적절한 한계설정(김민정, 최지영, 2008; 박선영, 2013)이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낮추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스마트미디어 중독에서는 사용자군 모두 어머니가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용선(201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지면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따라서 어머니 본인이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바람직한 사용 습관을 갖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의 스마트미디어가 보급되어 사용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관련 연구들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스마트미디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충분한 선행연구 고찰이 어려웠고 논의에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유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

에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위해 개발된 독립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고,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의 발달특성상 자기 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정도를 어머니 보고에 의해서 측정했다. 이러한 방법은 설문 결과의 왜곡이나 오류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과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 스마트미디어의 사용 정도와 문제점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아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유아를 일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을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유아 스마트미디어 위험사용자군의 수가 적어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위험사용자군을 대규모 표집함으로써 중독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연구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확장시켰으며, 지금까지는 유아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대한 유아변인 및 어머니변인의 관계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별로 유아의 일반적 특성 및 사용실태,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과다사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서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강정원, 김승옥, 홍기목 (2011). 유아를 위한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15(3), 323-342.
- 고서린 (2014). 영유아 자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현영 (2010).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과 예측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6(3), 203-210.
- 권연정 (2014). 만2세반 영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중심으로. 육아지원연구, 9(1), 213-242.
- 금창민 (2013).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proneness)'과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 이윤희, 이주영, 김명찬, 금창민, 남지은, 강은비, 정여주 (2012). 미디어 이용 대체·보완과 중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71-88.
- 김미정, 하지민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283-303.
- 김민석, 문혁준 (2015).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분석 및 부모 관련 변인 연구. 인간 발달연구, 22(1), 77-99.
- 김민정, 최지영 (2008). 유아의 전자미디어 사용실태와 어머니의 인식에 관한 한국과 미국 비교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7(1), 37-56.
- 김은경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박성덕, 김경철 (2011). 학습관련 인지 이론에 기반한 유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분석. 한국게임학회논문지, 11(4), 163-174.
- 김주아 (2013). 영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태도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4), 569-593.
- 김주연 (2002).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관련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김지현 (2010). 유아의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 대한가정학회지, 48(8), 77-86.
- 나용선 (2013).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집 이용유아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7(3), 32-53.
- 동아일보 (2010. 10. 28). 손만 대면 기기가 기능하는 터치스크린 덕분에 두세 살 영아도 사용이 가능 할 정도다. <http://news.donga.com/3/all/20101028/32173211/1>에서 2010년 10월 28일에 인출.
- 류미향 (2014). 영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 어머니 인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탐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6, 307-329.
- 문미향 (2012). 부모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과 영아의 미디어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013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박선영 (2013). 아동의 스마트기기 중독성과 부모 중재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라 (2005).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9(4), 166-190.
- 박소영, 문혁준 (2012). 아동의 가족건강성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따른 인터넷 게임중독 경향. 인간발달연구, 19(1), 143-162.
- 박소영, 문혁준 (2013). 초등학생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인터넷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탐색: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의 매개적 역할. 인간발달연구, 20(2), 109-124.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원 (2012). 유아의 기질 및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
- 서민영, 임은미 (2010).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게임 중독경향과 인성특성의 관계. 아동교육, 19(4), 163-175.
- 서소정, 박주영, 김진희 (2014). 유아 및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정도, 유아의 주의집중력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
- 신영미 (2012). 스마트폰 이용동기 및 정도와 과다사용 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세라 (2003).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인천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경 (2014). 개인적, 환경적, 매체 특성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정민 (2012).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감독과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연 (2014).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변인 연구: 유아 성별, 스마트폰 처음 사용연령, 스마트폰 사용능력 및 기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정 (2013). 유아의 스마트기기 이용실태 및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석, 성영화 (2012).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한 어머니의 인식. 육아정책연구, 6(1), 20-38.

- 이재연 (2013). 초등학생의 휴대폰 중독, 학교생활 적응,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숙, 문보경 (2010).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조달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55-74.
- 이혜숙 (2010). 유아의 게임몰입성과 유아의 정신건강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흥석 (2013).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장미경, 이은경 (2007).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욕구와 부모관련변인이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125-1138.
- 장영애, 박정희 (2007). 아동의 인터넷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6(6), 1131-1140.
- 전춘애, 박철옥, 이은경 (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9(2), 709-726.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판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Korea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93-377.
- 정인희, 황혜정 (2009). 만 3-5세 유아의 기질 측정을 위한 부모용 검사 도구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91-116.
- 정지혜 (2011).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방어기제와 휴대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윤 (2008). 보육시설 아동의 코티솔 수준: 보육 경험, 사회계층,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 (2005).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3), 111-123.
- 한겨레 (2014. 1. 2). 육아도우미 스마트폰, 그 치명적 유혹.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3&oid=028&aid=0002215767>에서 2014년 1월 2일에 인출.
- 한국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2년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서울: 미 한국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중독 진단척도 개발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스마트미디어중독 특성 및 중독 해소 개입 전략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황태경 (2013).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실태와 몰입경향성, 자기조절력,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Bittman, M., Rutherford, L., Brouwn, J., & Unsworth, L. (2011). Digital natives? New and old media and children's outcomes.

-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55(2), 161-175.
-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s*, 80(3), 879-882.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ingel, D. P., & Krcmar, M. (2013). Predicting media use in very young children: The role of demographics and parent attitudes. *Communication Studies*, 64(4), 374-394.
- Corsini, R. J. (1994). *Encyclopedia of psychology*(2nd ed.). NY: John Wiley.
- Griffiths, M. D., & Hunt, N. (1998). Dependence on computer games by adolescents. *Psychological Reports*, 82(2), 475-480.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ashemi, M., & Ghasemi, B. (2011). Using mobile phones in language learning/teaching.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 2947-2951.
- Lee, S. J., & Chae, Y. G. (2007). Children's internet use in a family context: Influence on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al mediation. *Cyber Psychology &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0(5), 640-644.
- Nakken, C. (1996). *The addictive personality: Understanding the addictive process and compulsive behavior*. Center City, MN: Hazelden.
- Peterson, G. W., & Rollins, B. C. (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as symbolic interaction. In M. Sussman, & S. K.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 (pp.471-508). NY: Plenum Press.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 1-6.
- Putnam, S. P., & Stifter, C. A. (2005). Behavioral approach-inhibition in toddlers: Prediction from infancy,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e components, and relations with behavior problems. *Child Development*, 76(1), 212-226.
- Rosen, L. (2008). The association of parenting style and child age with parental limit setting and adolescent my space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459-471.
- 1 차원고접수 : 2015.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5. 08.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9. 01.

Young Children's Use of Smart-Media and Variables Affecting Overuse Displayed by a Smart Media Child User Group

Park, So Young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oon, Hyuk Ju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o what extent child's characteristics(dispositions) and mother's characteristics(parenting stress, parenting actions, and smart media addiction) can be used as variables to measure their influences on overuse of smart media among 3-5 year-old children. For investigating the reality of smart media usage, smart media users were categorized as either regular users or high-risk users. Participants consisted of 686 young children from thirtee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The collected self-report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alpha, cross tab analyses, correlation analyses and comparing two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key findings suggested that depending on the children's smart media usag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nly among various institutions and household incomes, the start of children's smart media usage, the average usage time on weekdays and weekends, the person who determines the child's smart media usage, the person who uses smart media with the child, the existence of guidelines in the household, and the reason for allowing the child to use smart media. Second, a child's variables and a mother's variables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media overuse the mother's smart media addiction showed the highest positive correlations in the regular user group. Third, the setting of guidelines for parenting actions had the most positive correlations in the high-risk user group.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data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smart media over-use prevention programs.

Keywords: smart-media overuse, dispositi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actions